

- 알 파 고 시 대 , 서 산 교 육 의 미 래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총 평	1
II.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명)	2
② 지정토론(4명)	3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6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 알파고 시대, 서산 교육의 미래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알파고와 인간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음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충격과 혼란을 넘어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
과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사 개요 》

- 일사장소 : ' 16. 11. 4. (금), 14:00~16:00 / 서산문화복지센터
- 참 석 : 200여명(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 주 제 : 「알파고시대 서산 교육의 미래」

I 총 평

- 알파고와 인간의 대결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긴급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암기, 숙지위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놀이, 창의력, 학생들의 역량 강화 위주)로의 전환을 요구
-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충남의 학교혁신과 참학력의 교육정책 추진이 미래 교육을 위한 대안으로써 긍정적 측면을 강조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토론내용(요약)

1 주제발표

< 이광호 (이우 중 · 고등학교장) >

○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다보스포럼) :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의 기술적 융합과 속도, 범위, 그리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산업혁명과 확연한 구분

○ 알파고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당면 과제

- 한국의 사회 · 경제적 상황의 심각성, - 인구절벽시대 도래
-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와 승자독식의 사회시스템 강화 및 사회안전망 취약
-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학교 교육에 투영되고 이에 교실 붕괴 가속화
- 극심한 이기적 경쟁속에서 공동체적 연대감, 사회적 책무성등 민주 시민의 자질 교육 미흡

○ 핵심역량 교육 혹은 역량기반 교육과정등 기존 학력의 개념을 넘어 역량중심의 학교 교육 개혁 노력

- 경기도 교육청, 2012 경기도 교육과정을 통해 7개의 혁신역량(창의지성역량) 제시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및 지속적 추진중
- 미국의 NACE, 협업능력 혹은 팀워크, 리더십,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제시

○ 마지막으로 알파고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 기존의 교육관념, 즉 패러다임 극복을 위해 학교 교육을 인문적

소양과 기본적인 역량(자율성, 협업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노동시장과 연관된 영역은 별도의 직업교육, 평생교육에서 담당

- 기존의 초-중-고-대학-취업으로 연결되는 단선적 위계 구조에서 탈피하고 고-직업교육-취업(+대학)-평생교육, 고-평생교육-대학-직업교육 등으로 다변화
- 알파고 시대에 적합한 학력, 역량 개념의 재정립 요구와 근본적인 연구와 실천이 요구되며, 알파고시대에는 개인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실험과 도전이 용인되는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인구절벽 시대에 개인은 소중한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학습과 성장의 개별화,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반영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② 지정토론 (4인)

① 장우현 (서산대진 초등학교장)

○ 행복을 함께 나누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복나눔학교 사업의 목표인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미래지향의 공교육 정화모델학교 육성 및 운영,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나눔학교 사업이 제4의 물결을 지향하는 사회의 기대에 충족시킬 것임.
- 행복나눔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점은 교육과정의 교육철학적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 아이들을 끌고가는 교육이 아닌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지향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교육과정임.

- 학교운영은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전환하여, 교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조력자 및 협력자 역할과 다양한 평가방식 및 그에 따른 가정 통지로 인해 가정과의 연계체계 구축등
- 교육공동체로써의 모두가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등을 강조.

② 최일성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해서 먼저 경험기반 학습 능력과 자기 표현력을 강화하고 이는 학생이 자발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단순한 지식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며, 탐구하는 방법, 수많은 데이터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방법등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의 일방적 지식 전수 교육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과 가설 설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취합 및 탐구과정을 가르쳐야 함.

③ 심주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정책국장)

- 아이들의 삶속에 스스로하는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
 - 놀이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놀이를 통해 친구와의 협력과 융합을 배울 수 있음
 - 또한,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
- 이에 혁신학교가 성과를 내는 이유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수업을 하고, 학생자치를 도입했기 때문임.

④ 윤여준 (충남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 학교혁신의 내용과 충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참학력)에 대한 설명

- 학교혁신이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교육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성찰하고 바뀌보자는 것이며, 소통과 협력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낡은 것은 바꾸어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가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

○ 새로운 교육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

- 첫째, 학교 교육은 선대의 지레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후대에 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
- 둘째,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물건의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교육을 지향
- 셋째, 성숙사회가 되면서 모두의 가치관,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 취미가 다양화되는등의 주어진 정답만을 따라가는 과거의 교육으로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새로운 정답을 만들어 새로운 교육방식의 전환이 필요

○ 이에 충남의 참학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식 전달과 암기 위주의 학력을 넘어,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교육’ 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을 실현한다.
- 둘째, 참학력은 아이들이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시험공부 중심의 학력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여 그에 합당한 역량을 기르는 진로공부를 중시한다.
- 셋째, 참학력은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미래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 넷째, 참학력은 아이들이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도록,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인문학적 소양과 생명존중 및 생태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사회·경제적 변환에 따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요구
 2. 교육방식의 전환 요구(가르치는 교육방식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해결방식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식)
 3. 초-중-고-대학-취업으로 연결되는 단선적 교육 위계 구조에서 탈피하고 고-직업교육-취업(+대학)-평생교육, 고-평생교육-대학-직업교육 등으로 교육 위계 구조의 다변화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양상과 함께 새로운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존 교육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
-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충남의 참학력 및 참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